

대림, 해외수주 부진으로 악화 우려

3/4분기 현재 수주목표 32.5% 불과 ... 사우디 플랜트 시장 경쟁과열로

대림산업의 영업실적 악화 우려로 증권기업들이 잇달아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 조동필 연구원은 “2012년 대림산업의 해외수주 목표는 7조8000억원이었으나 3/4분기까지 2조 6000억원 수준만을 달성했다”며 “2012년 해외수주 부진으로 앞으로 매출 성장이 애초 예상치보다 밀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 플랜트 원가율이 벤더의 부도라는 일회성 요인으로 상승했지만 국내 건축 원가율이 개선돼 전체 수익성은 애초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주가는 기존 12만1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NH농협증권도 대림산업의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목표주가를 13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강승민 연구원은 “3/4분기 조정 영업이익은 양호했으나 해외수주 잔고의 질이 이전보다 악화돼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수주가 기대보다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해외부문 성장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도 대림산업의 목표주가를 기존 14만8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28% 하향 조정했다.

강광숙 연구원은 “주력시장인 사우디에서 주요 석유화학과 발전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해 2011년보다 해외수주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우디 화공플랜트 시장의 가격경쟁이 유럽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로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해당 시장에서 양질의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우디 시장을 대체할 신규시장의 확보가 해외수주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역시 대림산업의 영업실적 부진과 성장둔화가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12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낮추어 책정하고 투자의견 역시 매수에서 <단기매수>로 하향 조정했다.

조주형 연구원은 “2012년 3/4분기 영업실적에서 수주 부진, 전년대비 분양물량 감소, 원가율 부담, 글로벌 발주시황 침체 등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05>